

2024학년도 한국예술종합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2024. 1. 3.(수) / 등록금심의위원회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 1. 3.(수) 14:00~14:27, 본관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재적위원 9명 중 9명 참석
 - 당연직(3명): 교학처장(위원장), 교학제2부처장(부위원장), 총무과장
 - 위촉직(6명): 전임교원 1명, 학생대표 3명, 학부모 1명, 전문가 1명
- ※ 예산담당주무관

□ 회의 안건

- 2024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전학년도 대비 동결안)

□ 회의 결과

- 전학년도 대비 동결안 최종 가결(출석위원 9명 전원 동의)

□ 주요 회의 내용

- (위원장)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 개최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함. [개회 시각 14:00]
- (위원장) 위원소개를 하고, 예산담당 주무관의 진행을 요청함.
- (예산담당 주무관) 2024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을 보고하고 등록금 책정안에 대하여 설명함.
- (위원장) 보고 받은 책정안에 대하여 위원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 (부위원장)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 질문함.

- (예산담당 주무관) 총교육비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직·간접적 비용을 말함. 학생 1인당 받는 교육비임. 총교육비 예산은 자체수입(등록금) 이외에 국가지원금, 산학협력단 예산, 발전기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작년도 대비 예산 또는 지출이 증가하면 총교육비금액이 증가함.
- (부위원장) 만약, 내년도 국가지원금이 삭감 된다고 하면 1인당 교육비가 감소 될 수도 있는지 질문함.
- (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음. 24년도 예산에 기숙사 예산 확보 등 국가지원금이 확대되어, 24년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정확한 통계는 재학생수 등을 고려해야하므로 내년도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음.
- (전문가) 한예종이 1인당 교육비가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 인지 질문함.
- (총무과장) 학교 예산규모와 학생 수와의 관계도 있고, 통계적으로 다른 대학보다 높은 순위에 있음
- (전임교원) 타 대학 등록금 동향에 대해 질문함.
- (총무과장) 24년도는 아직 미정임.
- (예산담당 주무관) 작년에는 많은 대학들이 대학원은 인상한 것 같고, 올해는 학부도 인상에 대해 검토하는 대학이 있는 것 같음.
- (전임교원) 타 사립대학은 등록금이 한 학기 800만원 정도 하는 곳도 있음. 그에 비해 학교는 매년 동결로 한 학기 200만원 수준인데, 국고 예산 축소현상이 심해지면 그 차이를 어떻게 메꾸 가야할지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위원장) 올해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검토를 했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 하여 올해까지는 동결로 가기로 어렵게 결정을 했음.
- (위원장) 학생들이 체감하는 우리학교의 등록금에 대해 질문함.
- (학생위원1) 타 대학에 다니는 친구와 얘기했을 때 또는 타 대학의 등록 금액을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고 느끼고 있음. 하지만 학교가

계속 지속되려면, 학생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결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기도 함.

- (전문가) 최근 몇 년 등록금 추이를 보면, 다른 대학도 다 동결하는 추세인데 다른 대학들도 동결이니, 우리학교도 동결로 가는 것인지, 어떤 학교가 먼저 인상을 하면 그 분위기에 따라 인상을 하는 것인지 질문함.
- (위원장) 타 대학은 대학교 등록금을 인상 하면, 교육부의 장학금 배제 등이 있어서 대학교는 동결로 가고, 장학금과 상관이 없는 대학원을 인상하고 있음. 우리학교는 교육부 소속이 아니고 해당 배제와는 관련이 없어서 인상을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음.
- (전임교원) 학교가 몇 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음.
- (학생위원2) 내년에 불가피하게 등록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높게 인상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음.
- (위원장) 등록금 인상 범정한도가 있음. 교육부에서 지침을 주는데 올해는 5.64%이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었음. 그리고 내년도에 올린다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1년 동안 검토해봐야 할 것 같음.
- (부위원장) 등록금 인상률을 5.5%로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한 학기당 최대 14만원 정도였음. 갑자기 등록금을 2배로 올리진 않음.
- (위원장) 심의·의결 안건인 2024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출석 위원 9명 중 9명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2024학년도 등록금은 원안과 같이 전학년도 대비 동결로 최종 가결되었음 선포함.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함.

[폐회 시각 14:27]